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ffective and Cognitive Antecedents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 미 성

위덕대학교 교육학부

전임강사 이 순 복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전 귀 연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Kim, Mi-Seong

Devision of Education, Widuk University

Lecture Lee, Soon Bok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Jeon, Gwee-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antecedents and how much these antecedents have an effect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attachment, extroversion, and depression affect materna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Mother's extroversion and neuroticism affect maternal control parenting behavior.

Second, Mother's general-rearing-capacity and communication-capacity affect materna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Mother's caring-health-capacity and communication-capacity affect maternal control parenting behavior.

Third, Cognitive variables, especially parenting communication-capacity, have great effect on materna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than any other variables.

Forth, Cognitive and affective variables have comparable levels of impact on maternal control parenting behavior. But especially communication-capacity have great effect on maternal control parenting behavior than any other variables.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 심리정서적 특성(affective antecedents), 인지적 특성(cognitive antecedents)

1. 연구의 중요성 및 문제의 제기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아동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정환경의 여러 요소 중 인적환경인 부모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성격과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의 여러 발달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양육행동 중 온정이나 애정, 관심과 같은 양육특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박영애, 정옥분, 1996; 최미경, 도현심, 1998)과 사회적 능력(천희영, 1993), 정서지능(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안정애착(Bowlby, 1973)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와 방임과 같은 양육특성은 사회 정서성(김광웅, 이인수, 1998)과 공격성(김민정, 도현심, 2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여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것에 비해 어머니가 취하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그리고 맥락적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나, 그 중 특히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의 특성(김미성, 전귀연, 2003)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가 가진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육행동과 어머니 특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어머니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즉 심리정서적 특성(애착, 성격 특성)과 인지적 특성(양육효능감)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과거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생애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과거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이해승, 2000; 정해승, 1999),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양육행동이 매개가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성연, 임희수, 2002)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로 미루어볼 때 부모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현재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성연과 임희수(2002)는 양육행동을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적극적 참여, 통제로 정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갖는 애착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거부적 태도와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양육행동에서 애착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as Eiden, Teti 그리고 Combs(1995)는 16-32개월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안정애착과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애착경험은 과거의 실제 경험보다는 과거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Gerlsma,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밝힘에 있어 어머니가 어느 정도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회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성격 특성은 외향성과 신경증(김수진, 도현심, 2001), 반사회성, 편집증, 경조증(박영애, 최은경, 2001) 그리고 우호성과 자율성(Grossman, Pollack, Golding, & Fedele, 1987)등이 있다. 성격과 양육행동에 관한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가 각 연구자마다 달라서 연구결과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또 일부 연구들은 임상척도를 사용해 일반인들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박영애 등, 2001).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성격검사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성격특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는 부모교육을 계획할 시 보다 용이하게 부모 성격 특성별로 집단을 세분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우울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일부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덜 민감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으며(Belsky & Pensky, 1988; Bettes, 1988), 행동이 위축되어 있었다(Webster-Stratton, 1988). 우울은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는 증세를 보여 아동의 요구에 따듯하고 민감하게 대하는 부모의 능력을 저해한다고 한다(박영애 등, 2002). 우울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며(김영희, 장래수, 2004),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우울 정도가 양육행동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Bandura(1977)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자기지각은 사고방식과 정서반응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인지적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부모효능감은 부모됨과 부모역할, 즉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자신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Mash & Johnston, 1989).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 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이다(안지영, 2001).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 평가인 양육효능감은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인 양육효능감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관시킨 실증적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의 특성 요인은 심리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만을 변인으로 하거나, 양육효능감을 변인으로 한 연구 등 특정한 단일 변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거나, 양육행동을 매개로 어떤 요인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변인 모두를 고려했을 때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학자들은 양육행동과 양육태도를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자들이 내린 양육행동과 양육태도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유사한 것이 많고, 양육행동과 양육태도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김재희와 박경관(1998)은 양육행동을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뜻하며, 박성연과 이숙(1990)은 양육태도란 부모나 양육자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양육행동과 양육태도의 정의가 매우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느낌이나 추상적인 태도는 행동에 반영되므로 양육태도보다는 양육행동의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경향이다.

양육행동은 이와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학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연구되었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애정을 받고 자란 유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보았다. 전자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 요구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지를 나타내는 차원이며, 후자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지배하는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여 양육태도를 '애정적-적대적', '자율적-통제적'

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애정적’ 태도는 칭찬, 애정표현, 요구 신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며 ‘적대적’ 태도는 이와 반대되는 것이다. ‘통제적’ 태도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지시하고, 부모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것이며 ‘자율적’ 태도는 이와 반대되는 것이다. Maccoby와 Martin(1983)은 ‘통제-자율’과 ‘애정-적대감’은 서로 다른 차원의 특징으로 보고 이들 조합에 따라 4가지 양육유형(권위적: 통제가 높고 애정이 높음, 독재적: 통제가 높고 적대감이 높음, 허용적: 자율이 높고 애정이 높음, 방임적: 자율이 높고 적대감이 높음)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또한 Alford(1969)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본질은 통제와 애정으로 볼 수 있으며 두 가지가 짝지워지는 정도에 따라 4가지 유형(보호형: 높은 통제와 높은 애정, 거부형: 높은 통제와 낮은 애정, 무시형: 낮은 통제와 낮은 애정, 수용형: 낮은 통제와 높은 애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Rohner와 Rohner(1981)는 세계 186개 사회의 부모 양육행동을 분석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애정차원과 통제차원이라고 하였고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의 연구에서도 양육행동은 크게 애정과 통제라는 두 요인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유아기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애정과 통제의 두 차원을 들고 있다. 양육행동은 자녀를 승인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현하는 특성인 애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의사에 따르도록 만드는 특성인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 ·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및 태도로 정의하고 ‘애정’과 ‘통제’의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1.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우울, 성격특성, 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우울, 성격특성, 애착), 인지적 특성(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3-1.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우울, 성격특성, 애착), 인지적 특성(양육효능감)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2.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우울, 성격특성, 애착), 인지적 특성(양육효능감)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에 거주하는 만 5-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 176명을 대상으로 양육행동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대구광역시 및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총 200부의 질문지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하여 183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176부를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아동 성별	남	91 (51.7)	가족수입	100만원 이하	6 (3.4)
	여	85 (48.3)		101-200만원	48 (27.3)
아동 연령	5세	79 (44.9)		201-300만원	49 (27.8)
	6세	97 (55.1)		301-400만원	31 (17.6)
				401-500만원	24 (13.6)
				501만원 이상	18 (10.2)
모의연령	25-30세	31 (17.6)	모의학력	고졸	86 (48.9)
	31-35세	109 (61.9)		전문대졸	30 (17.0)
	36-40세	27 (15.4)		대졸	52 (29.5)
	41-45세	9 (5.1)		대학원졸 이상	8 (4.5)
모의직업	전업주부	102 (58.0)	부의 직업	전문직	29 (16.9)
	전문직	24 (13.6)		관리직	13 (7.6)
	사무직	11 (6.3)		사무직	43 (25.0)
	서비스직	15 (8.5)		서비스직	13 (7.6)
	판매직	16 (9.1)		판매직	30 (17.4)
	생산직	2 (1.1)		생산직	28 (16.3)
	무직 및 기타	6 (3.4)		무직 및 기타	16 (9.3)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아를 둔 어머니가 51.7%, 여아를 둔 어머니가 48.3%였고 아동의 연령은 만 5세가 44.9%와 6세가 55.1%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6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8.9% 대졸이 29.5% 전문대졸이 17.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은 없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58.0%)가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25.0%)이 가장 많았다. 가족의 수입은 101-200만원이 27.3%, 201-300만원이 27.8%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양육행동 척도

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현심(1996)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를 승인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현하는 특성이며,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과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으로 부모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특성이다.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8문항, 통제적 양육행동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특성을 높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애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2와 .78이다.

2) 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Hazan과 Shaver(1992)가 제작한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이현미(1997)가 16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렸을 때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애착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5이다.

3) 성격특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내-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 측정을 위해 Eysenck와 Eysenck(1975)가 제작한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이현수(1985)가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향성은 대인관계에서 온정적이고, 활동적이고 흥미를 갖는 경향을 가지는 특

성이며, 신경증적 경향성은 예민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특성이다. 외향성에 관한 15문항과 신경증적 경향성에 관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특성을 높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81, .87이다. 우울은 윤요은(1998)이 사용한 「간이 정신 진단검사」 단축형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중 우울에 관한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우울은 무가치감, 무기력감, 식욕장애 등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5이다.

4) 양육효능감 척도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지각하는 것으로 최형성과 정옥분(2000)의 척도로 측정한다. 전반적인 양육능력 11 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문항, 의사소통능력 8문항, 학습지도능력 5문항, 훈육능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양육효능감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9, .79, .82, .82, .77이다.

3. 자료분석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연구문제1과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후 특성별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이 가장 적은 특성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각 특성의 설명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특성내의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을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자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평균점수는 3.00(SD= .30), 통제적 양육행동은 2.60(SD= .34)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값(2.5점)보다 높은 점수로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의 애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 평균과 표준편차

양육행동	평균(표준편차)	가능점수범위
애정적 양육행동	2.98(.39)	1-4점
통제적 양육행동	2.60(.34)	1-4점

2.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3> 심리정서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애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B	β	B	β
애착	.10	.22***	-.01	.03
외향성	.02	.14*	-.02	-.18**
신경증적 경향성	-.00	-.05	.02	.34***
우울	-.11	-.18**	-.01	.02
F	12.40***		13.02***	
R ²	.17		.18	

*p<.05, **p<.01, ***p<.001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애착과 외향성 그리고 우울이었다. 과거의 애착을 안정되게 회고할수록, 외향성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으며, 우울감이 낮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적 경향성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애정적 양육행동을 17%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었다. 외향성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였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애착이나 우울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을 18%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 즉 양육효능감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능력, 학습지도능력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은 애정적 양육행동을 42%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 즉 양육효능감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의사소통능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반적인 양육능력, 훈육능력, 학습지도능력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을 17%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양육효능감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애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B	β	B	β
전반적인 양육능력	.24	.31***	-.08	-.11
건강하게 양육능력	.07	.09	.11	.16*
의사소통능력	.32	.37***	-.33	-.45***
훈육능력	-.00	-.00	.05	.08
학습지도능력	-.03	-.05	.02	.03
F	36.23***		10.03***	
R ²	.42		.17	

*p<.05, **p<.01, ***p<.001

4.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중다회귀분석으로 설명력이 가장 낮은 특성부터 설명력이 높은 순서로 변인군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낮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먼저 투입하여 그것의 설명력을 통제한 후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특성을 투입함으로써 각 특성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특성내의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을 밝힐 수 있다.

1)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표 5>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애정적 양육행동			
	1단계		2단계	
	B	β	B	β
애착	.11	.22***	.04	.09
외향성	.02	.14*	.00	.02
신경증적 경향성	-.00	-.05	.01	.07
우울	-.11	-.19**	.05	-.08
전반적인 양육능력			.230	.31***
건강하게 양육능력			.06	.08
의사소통능력			.30	.35***
훈육능력			.003	-.01
학습지도능력			-.03	-.05
F		12.41***		20.79***
R ²		.17		.44
증가된R ²		.17		.27

*p<.05, **p<.01, ***p<.00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 심리정서적 특성을 1단계로 투입하고, 인지적 특성을 2단계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심리정서적 특성만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애착($\beta = .22$), 외향성($\beta = .14$), 우울($\beta = -.19$)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7%였다.

2단계로 인지적 특성을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beta = .09$), 외향성($\beta = .02$), 우울($\beta = -.08$)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지적 특성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beta = .31$)과

의사소통능력($\beta = .35$)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특성을 첨가함으로써 증가된 설명량은 27%였다. 그리고 독립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44%로 나타났다.

어머니 인지적 특성을 투입함으로써 심리정서적 특성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인지적 특성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표 6>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통제적 양육행동			
	1단계		2단계	
	B	β	B	β
진반적인 양육능력	-.07	-.12	.02	.03
건강하게 양육능력	.11	.16*	.16	.23**
의사소통능력	-.33	-.45***	-.30	-.40***
훈육능력	.04	.08	.02	.03
학습지도능력	.02	.03	-.01	-.02
애착			.03	.07
외향성			-.01	-.14*
신경증적 경향성			.02	.33***
우울			.01	.02
F		-10.03***		10.31***
R2		.17		.28
R2증가량		.17		.11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 인지적 특성을 1단계로 투입하고, 심리정서적 특성을 2단계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인지적 특성만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beta = .16$), 의사소통하는 능력($\beta = -.45$)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7%였다.

2단계로 심리정서적 특성을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beta = .23$), 의사소통능력($\beta = -.40$)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특성 중 외향성($\beta = -.14$)과 신경증적 경향성($\beta = .33$)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특성을 첨가함으로써 증가된 설명량은 11%였다. 그리고 독립변인들

의 총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투입하고도, 인지적 특성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는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심리정서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1. 어머니 심리정서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 심리정서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애착, 외향, 신경증, 우울이었다. 그 중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애착, 외향, 우울이었으며 신경증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전생애적 관점을 통해 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박성연, 임희수, 2002; 이혜승, 2000)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우호성, 사회성, 외향성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격특성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애정적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였다. 어머니의 우울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과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있음을 지적한 Roxburgh, Stephens, Toltzis 그리고 Adkins(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외향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내향적일수록,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외향성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적게 하며,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전현진(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박영애와 최은경(2001)의 연구에서 편집증과 경조증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높았다. 위의 연구에서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정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적게 나타낼수록 아동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특성 적게 나타내며 이는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어머니 인지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은 양육효능감이었다. 그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최형성 등, 2000)으로, 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으로 아동을 이해하고 수용적일수록 또한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아동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통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능력은 아동을 지도하고 부모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1)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별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심리정서적 특성보다는 인지적 특성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지적 특성으로 전반적인 양육능력($\beta = .31$)과 의사소통능력($\beta = .35$)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애정적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중에서 특히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심리정서적 특성 중 애착, 외향성, 우울은 1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인지적 특성이 첨가되면서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는 양육효능감 중 의사소통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이 높다면 아동과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심리정서적 특성들은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별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심리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지적 특성 중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beta = -.40$)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의 의사를 따르게 하려는 것은 의사소통 이전에 일방적인 부모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특히 1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었던 인지적 특성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beta = .16$)은 2단계에서 심리정서적 특성이 첨가되면서 유의한 영향력($\beta = .23$)이 더 커진 것은 아동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의지가 의사소통 이전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을 통해 통제적 행동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인지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및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 및 경북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하여 5-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176명이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질문으로 양육행동 척도, 성인애착 척도, Eysenck 성격검사,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ronbach α ,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애착, 외향성, 우울,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다.

둘째,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다.

셋째, 애정적 양육행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특성은 인지적 특성이며 다음이 심리정서적 특성이다.

넷째, 통제적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특성은 인지적 특성이며 다음으로 심리정서적 특성이다.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및 인지적 요인들이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

적 양육행동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모두 무엇보다 어머니의 특성 중 양육효능감이 가장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가질 것이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심리정서적 특성보다 인지적 특성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양육 기술이나 정보 혹은 지식의 전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심리정서적 영향이 있음은 부모교육이 부모자신에게 줄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부모로서의 제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을 넘어서 개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태도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미성, 전귀연(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관리학회지*, 41(12), 207-228.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7.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수진, 도현심(2001). 부-모간 양육행동의 관련 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 김재희, 박경란(1998).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5, 1353-1377.
- 김영희, 장래수(2004). 부모의 완벽주의, 우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행동. *놀이치료연구*, 8(1), 117-139.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성연, 임희수(2002).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영애, 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독립적 기여와 상호작용 효과. *아동학회지*, 17(1), 189-202.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영애, 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139.
- 안지영(2001). 2-3세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요은(1998).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미(1997).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 중앙적성출판사.
- 이혜승(2000). 부모의 아동기 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1996)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승(1999).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18.
- 최미경, 도현심(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최형성, 정옥분(200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Alford(1969). 김진영, 김정원, 진선옥(2000), 유아·부모·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창지사.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lsky, J., & Pensky, E.(1988). Developmental history, Pers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A. Hinde & J. Stevenson-Hinde(Eds.), *Relationship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 Bettes(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nesse: Temporal and international feature.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Bowlby(1973). *Attachment and loss*(Vol. 2.). Basic.
- Das Eiden. R., Teti. D. M., & Corns. K. M.(1995). Ma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5), 1504-1518.
- Gerlsma(2000). Recollection of Parental Care and Quality of Intimate Relationship: The Role evaluating Past Attachment Experiences. *Children's Adjustment.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7, 289-295
- Grossman, F. K., Pollack, W. S, Golding, E. R., & Fedele, N. M.(1987). Affiliation and Autonomy in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36, 263-269.
- Mash, E. J., & Johnston, C.(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m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 Rohner, R. P. & Rohner, E. C.(1981).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 245-260.
- Roxburgh, S., Stephens. R. C., Toltzis. P., & Adkins, I.(2001). The value childrens, parenting strains, and depression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mothers. *Sociological forum*, 16(1), 55-72.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ymonds, P. M.(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ureau of Publications, Columbia Univ.
- Webster-Stratton(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